

## 제 2 강 성령의 열매 구조는 이렇다

갈라디아서 5장22~23절

남 육 진 신학박사

22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στὶν ἀγάπη χαρὰ εἰρήνη, (동.직.현.능.단.3)

호 테 캄포스 투- 프뉴-마토스 에스틴 아가페- 하라 에이레-네-, > 성령 받은 이의 기본 마음(자세)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오직 열매는 성령의 -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μακροθυμία χρηστότης ἀγαθωσύνη, > 성령 받은 이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자세)

마크로두미아 흐레토테-스 아가도-수네- ,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πίστις 23 πραΰτης ἐγκράτεια· > 성령 받은 이를 다른 이들이 대할 때(볼 때)

Πισ티스 프라우테-스 엔크라테-아

faithfulness, meekness, self control ;

충성과 온유와 절제-

κατὰ τῶν τοιούτων οὐκ ἐστὶν νόμος. (동.직.현.능.단.3)

카타 토은 토이우-토은 우욱 에스틴 노모스

against such things there no is law

금지할 이 같은 것을 없 느니라 법이

國文：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A.V.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사역：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친절 자선, 정직 23신사적 절제

이니; 따라서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원문에는 ‘오직’인 &가 문두에 와서, “그러나”이다. 즉 갈5:22는 “그러나”로 시작된다.

5:19-21의 육체의 일들에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이므로, “그러나”로 5:22가 시작된다.

&는 문장의 처음에 나올 수 없는 후치 어(後置語)이므로 그 절의 둘째 번에 온다.

그리고 altima(최종절)에 ( ' )accent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계속되므로 ( ` )grave 로 되었다.

“성령의 열매”：원문으로는 “그 영의 그 열매”이다. 그 영의 “그”란 정관사는 성령의 것임을 지시한다.

그 πνεύματος에 두 acute가 있는 이유는 즉 altima에 ‘acute가 더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 ἐστὶν이 enclitic(전접어)가 있는 까닭에┌┐┐+ encl. ┌┐┐┐┐+ encl. 인 까닭이다. [cf.┌┐┐┐┐+ encl. →┌┐┐┐┐+ enclitic]

聖靈은 hebrew로 פרוח Greek으로는 πνεύμα이다.

聖靈은 聖父(God) 聖子(Jesus Christ)에게서 나오신다.

∴ Filiogae=(gue) and (Filio) from the Son(그리고 성자에게서)이다.

∴ ‘성령 받았다’는 어느 사람이 예수는 불완전하고 자기만 완전하다고 떠드는 자는 악령 받은 자이다. 성령만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초월(超越)시킨다.

성령의 열매는 육의 일들과 대립된다.

성령의 열매’는 원문에서 복수 複數가 아니고 단수이다.

∴ (그런고로)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이는 一體九面이다.

∴ 그 가운데 하나를 맺지 못한 자는 다 맺지 못 한 자이다.

∴ 사랑과 희락과 등등의 과’가 국문 성경에는 있으나,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없고, 영어에 는 사랑, 희락, 화평, ... 로 되어있고, 원문에는 사랑 희락 화평, ... 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一體九面(일체구면)이기 때문이다.

### 원문에는 열매를 3씩, 3조로 묶었다

그 열매의 첫 group의 1조(trial)인 “사랑, 희락, 화평”은 기독교의 知性(지성)(생각)(mind)에 대한 習慣(습관)들을 보다 많은 일반적인 면에서 包括(포괄)하는 것들이다.

다음 것의 2조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은 기독교의 이웃과의 교제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質(질)들이요,

셋째 조인 “충성 온유 절제”는 첫째 조와 같이 일반적인 性格(성격)의 것들인데, 基督教(기독교)의 행동을 인도하는 원리(原理)들인 ‘정직, 紳士的(신사적)인 것, 節制(절제)이다.

### 1. ‘사랑 희락 화평,’

그 構造(구조)는 層層(층층)으로 건설된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희락(喜樂)은 그 상층의 구조이고, 和平(화평)은 그 冠(관)이다.

사랑(ἀγάπη)은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언어는 희랍어(希臘語)(greek)인데, 그 언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4개 단어들 있다.

- 1) φιλία(philía) = 친구의 사랑, 2) στοργή(storgē) = 부모의 사랑, 3) ἔρως(eros) =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 배를 채우는 自我追求(자아추구)의 사랑(the self seeking love)
- 4) ἀγάπη(agapē) =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 자아를 주는 사랑(the self-give love). 이런 ἀγάπη가 성령 열매의 기초가 되므로, 제일 먼저 나왔다. (예; 방언은 성령열매가 아니다.)

**희락**(χαρά)은 χαρὰ는 χαίρω(기뻐하다)에서 유래되었고, 은혜란 χάρις도 이 동사에서 왔다.  
 ∴(그런고로) 참 은혜 속에 깊숙이 들어 갈 때만이 성(性)적 희락(喜樂)이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 (살전 5:16~22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묶어 놓은 것인데, 그 첫 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화평**(εἰρήνη)은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등등의 화평이 결코 아니라,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救贖)받고 하나님과 화목(和睦)할 때 만 이룩할 수 있다. 이 화평은 이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전혀 없는 것이다.(엡 2:14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우리의 화평’ 이시다 고 말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있다)

### 2. ‘오래참음 자비 양선,’

이 셋을 2번째 단계로 부류로 배열되었다.

**오래 참음**(μακροθυμία)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injure) 밑에서 인내심으로 참는 수동적인 것이다.

이 μακροθυμία는 μακρός(long) + θυμός(mind) = 인내(patience) 오래 참음(long suffering)이다. 이 원어가 어원적으로 밝히 지적한 것 같이 마음(mind)을 굽직굽직(long)하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길게 먹는 것 등이다. 순교자는 몇 분 몇 시간이면 된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성격(性格)적 순교함을 뜻한다.

**자비는** 중성적이며 이웃에 대한 친절한 기질(氣質)이다.

χρηστότης인데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내 멍에는 쉽(χρηστός)고 와 동근 어다.

그러므로 자비는 타인에게 불의의 큰 짐을 떠맡기지 않는다.

비교 ; 불교의 자비는 무관심이다. 예수의 것은 긴급적(緊急的)인 것이다. here and now (hic et nunc) 지금 당장 내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에게 갖는 친절한 태도의 자비이다 (고전 13:4).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의 자비이다.

**양선**(ἀγαθωσύνη)은 행동의 활동적 기준이다.

良善 = goodness(자선), beneficence(선행)(자비)=정력적(精力的)인 행동원리이다.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요, 양선은 적극적인 자선이다.

자비 = kindness, good will이고, 양선 = goodness, beneficence자선(선행)이다.

### 3. ‘충성 은유 절제,’

이 셋이 3조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다.

**충성**(πίστις)은 신앙의 수동적 의미인, ‘trust worthiness(신뢰성)’ ‘fidelity(충실)’

‘honesty(정직)’ 마태복음 25:23, 디도서 2:10,

비교 ; 롬 3:3 ※ πίστις(faith 신앙) 그 형용사 πιστός(faithfull)(계 2:10) 그러나 여기에 πίστις는 trustfulness(信賴性적인것), reliance(依持, 依賴),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취급할 때 신뢰적인 정직함인 것이다. (고전 13:7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은유**(πραΰτης)( \* = 이중모음이 아님 표시)는 충성과 연결된다.

은유=겸손+ 힘을 겸한 십자가 밑에서의 溫柔(은유)이다. 영어로 gentleness이다. 우유부단이 아니다. A.V. 자비를 gentleness로, 은유를 meekness로 그러나 N.I.V. R.S.V. Living Bible 에서는 자비를 kindness로 은유를 gentleness로 번역했다. 은유는 신사적인 태도이다.

**절제**(ἐγκράτεια)는 克己(극기) (self-control) < ἐγκρατης(master of self) 자신의 주인 = 자기를 이김인데, 자신인 자기가 제일 어려운 상대다. 자기를 잘 다스림은 마치 식사와 같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는 것과 같다. 절제는 성령일 때의 완성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있다. 모든 성공 인들은 다 절제와 극기의 사람들이다. 절제 다음의 ‘ = 윗점은 영어의 : (colon) 또는 ; (semicolon)인데 여기에서는 ; 이다.

**이 같은 것들**(κατὰ τῶν τοιούτων)= ‘이와 같은 질적인 것들에 반대하여’ 금할 법이 없느니라(οὐκ ἔστιν νόμος)에서 ‘없다’가 강조됐다. 왜냐하면 ἔστιν의 ‘ (acute accent)가 첫 음절에 와서 강조 되었다. 율법은 금지에 목적이 있으나, 성령의 역사들에는 그 금지가 없다.

디모테전서 1장 9절, ‘ ὅτι δικαίω νόμος οὐ κείται ‘ ∴ 의인(혹은 의로운 것)에게는 법이 놓여 있지 아니 하나니’ (that for a just man law is not laid down.)

갈라디아서 5장 18절, εἰ δὲ πνεύματι ἄγεσθε, οὐκ ἐστέ ὑπὸ νόμου.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 If ye be led by the Spirit ye are not under the law.)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그 원문에는 νόμος에 정 관사가 없다. 그런고로 어느 법도 일체 없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들과 현대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어 현대 성령의 일대혼선을 빚어내고 있는 이때, 참 성령 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의 구조 (갈 5:22~23)

▶ 성령의 열매

22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ἐστίν** (동.직.현.능.단.3)

호 데 캄포스 투- 프뉴마토스 에스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성령의 이다(단수)

▶ 성령 받은 이의 기본 마음(자세)

ἀγάπη χαρὰ εἰρήνη,  
 아가페- 하라 에이레-네-  
 love joy peace,  
 사랑 기쁨 평안 ,

▶ 성령 받은 이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자세)

μακροθυμία χρηστότης ἀγαθωσύνη,  
 마크로두미아 흐레토테-스 아가도-수네-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  
 오래 참음 친절 자선,

▶ 성령 받은이를 다른 이들이 대할 때(볼 때)

πίστις 23 πραΰτης ἐγκράτεια·  
 피스티스 프라우테-스 앵크라테아  
 honest gentleness self control;  
 정직과 신사적 절제이다

κατὰ τῶν τοιούτων οὐκ **ἐστίν** νόμος (동.직.현.능.단.3)  
 카타 톤 토이우-토온 우옥 에스틴 노모스  
 against such things there no is law  
 따라서 이것을 금할 **없다** 법은 .

國文：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A.V.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사역은 “22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친절 자선, 23 정직 신사적 절제

이다 ; 이것들의 거스를 법은 **없다**.”